예능 프로에 여성이 안보여

메트로 2014년 8월 27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추신수 팔꿈치 수술 시즌 끝

추석 앞두고 분주한 우편물류센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 추석 기간 소포와 택배 물량이 약 1432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기업 온라인 광고 '리얼'이 대세

소비자 생활에 녹아들기 마케팅 갈수록 확산
동영상 플랫폼 늘어나자 실제상황 제작 열풍

아이의 친한 친구 이름 세명을 적으시오." 어느 대기업 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10명의 아빠들. 회의실에 모여 특진 시험을 치르던 중 자녀 문제가 나오자 당황한다. 이어 자녀의 장래희망, 자녀가 좋아하는 가수를 쓰라는 문제가 계속되자 머리를 쥐어 뜯거나 엉뚱하게 어떻게 쓰는지 훔쳐 본다. 회의실이 한숨으로 가득 찰무렵 갑자기 시험장 모니터에 아이의 영상편지가 뜬다. 화면 속 아이는 '아빠 얼굴 까먹겠어. 일찍 좀 들어와'라고 외친다. 이윽고 진짜 아이들이 시험장에 들어와 아빠 품에 안긴다. 이 영상은 공익광고가 아니다. 기아자동차가 레저용 차량 카니발 홍보를 위해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만든 온라인 광고다.

기업 온라인 광고도 리얼이 대세다.

TV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처럼 관찰 카메라를 이용해 참가자들의 실제 상황을 광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상 기업은 광고를 크게 방송과 인쇄 매체로 구분해 만드는데 온라인 광고 제작 비중은 점점 늘리는 추세다.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을 비롯한 각종 동영상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광고 노출 빈도가 온라인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방송 광고 영상을 응용해 온라인 광고로 송출했지만 요즘은 방송 광고 뺨치게 심혈을 기울여 따로 제작한다. 영상미를 위해 다큐멘터리·뮤직비디오 감독을 기용하기도 한다. 실험 세트장은 실내 스튜디오를 벗어나 큰 회사나 지하철 역사를 통째로 빌릴 정도다.

온라인 광고의 생명은 초반 5초다. 대다수 동영상 플랫폼은 온라인 광고를 5초까지만 의무적으로 노출시키고 그 이상은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 본 동영상으로 넘어가게 한다. 이 때문에 업계는 시청자의 '5초'를 붙들기 위한 광고 전략에 고심했고 그 결과 리얼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게 됐다. 가공된 광고 영상보다는 실제 상황 영상의 반응이 더 좋고,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에 익숙해진 시청자가 많은 점이 요인이다.

삼성전자는 풀HD보다 4배 선명한 UHD 모니터의 화질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한 '리얼 실험 프로젝트' 캠페인 영상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실험에 동참한 5개 모니터 중 한개만 진짜 모니터고 나머지는 테두리만 있는 빈 모니터다. 이 영상은 '최고의 눈' 전문가들이 진짜 모니터를 골라내는 모습을 다룬다. 모니터를 오랜 시간 사용하는 프로게이머, 국가대표 사격선수와 양궁선수 등이 실험에 참여했으나 삼성 UHD모니터 선별에 실패해 흥미를 자아냈다.

최근 애경그룹도 창립 60주년 기업 영상을 실험 카메라로 제작했다. 지인에게 전화하자마자 '사랑해'라고 고백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재치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동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업이 제품 성능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기업 간 경쟁력을 나타내는 제품 시장 점유율보다 소비자 대상 생활 점유율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해당 서비스·제품의 가치가 소비자 생활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를 보여주는 마케팅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 프레인앤리연구소 소장은 "현대인들은 포장된 내용보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리얼에 목말라 있다"며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실험 과정을 통해 기업들은 제품의 자신감 표현은 물론 대외 신뢰도까지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민생법 통과 늦어 '경제 맥박' 꺼진다"

최경환 부총리 등 대국민 담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남은 8월 국회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표류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이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면서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민지기자

김무성·정종섭 수해현장 방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25일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을 방문,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침수지역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정국 '국회 올스톱'

野, 강력 투쟁 돌입… 111일째 입법 '0'

세월호특별법 여야간 대립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하고 국회 예결위장 철야 농성과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며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5일 의총에서 3자 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 "새누리당이 거절하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 구성을 끝내 거부하자 이날 밤 다시 의총을 속개해 대여 강경 투쟁을 공식화했다.

이어 26일 국회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 곁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3자 협의체 불가 입장을 거듭 주장하며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한 지난 19일 재협상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에 대한 타결 없이는 이달 말까지 예결위 회의장은 거점으로 장외와 국회를 오가며 대여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분리국감을 비롯해 모든 국회 일정은 '올스톱' 됐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이미 물 건너 간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12월 2일)에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지 111일째인 26일까지 입법 실적은 '0'건이다.

/조현정기자 hj@metroseoul.co.kr

싱크홀 논란 안전대책이 먼저다

기자 수첩

박선옥 <경제산업부 기자>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시작된 싱크홀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광주·울산·거제·단양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땅이 꺼지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강남 교대역 도로 한복판이 함몰돼 승합차가 빠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것이다.

싱크홀 현상이 잇따르면서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아직 추측만 난무한 상황이다. 특히 싱크홀 공포의 진원지가 된 석촌지하차도의 경우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원인이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제2롯데월드를 향한 시민들의 의심이 계속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당장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책임 소재에 관련된 자극적인 보도만 속출하고 있다. 물론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대형 개발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원인을 따지다 보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캐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직 땅 속에서 어떤 일이 왜 벌어졌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소재만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원인으로 지하에 매설된 관의 노후화, 도시화에 따른 지반공사 증가 등을 꼽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낡은 관들을 보수하고 대형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조사와 적절한 공법을 검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쓸 데 없는 논란으로 사건을 끌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기보다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새정치연합 거리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국민 참여 국가안전 대진단

어플 등 활용 신고 접수

잇따른 국가적 안전 재난사고와 관련, 하반기 중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경제자문회의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안에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해져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국민 참여형 안전 대진단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 대진단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계보하면 민관합동 국민안전 점검단의 분석 평가, 지자체 관계 기관의 현장 조사 및 보수 관련 예산 및 법령상 조치 강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자문회의는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안전 불감증을 징벌한다는 차원에서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와 같은 여객운송업자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과 관련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박 대통령, 내달 1일 노사정위와 간담회

●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박 대통령은 노사정 위원들을 초청해 회의가 잘되도록 부탁하고 격려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北 선수단 인천AG 참가' 남북 서면 협의

● 북한 선수단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 사이의 서면 협의가 26일 시작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올림픽위원회 명의 서한에 대한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회신 서한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차관에 김신호 건양대 교수 임명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신임 교육부 차관에 김신호 건양대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공주 교육대와 미국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한 뒤 초·중등 교사와 공주 교대 교수, 대전시 교육위원, 대전시 교육감(3선) 등을 거쳤다.

"윤일병 사건 재판 관할 국방부로"

육군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 중 한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용한 육군본부 공보과장은 26일 국방부에서 "(가해자 측 일부 변호인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의 관할권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일병 사건의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3군사령부 재판부의 첫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최 과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제시한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3군사령부 검찰부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가습기살균제는 살인도구"

피해자·유족, 제조업체 15개사 대상 고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다. 직접 피해자는 94명이고, 이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다"며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140명 넘게 나왔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살해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자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고소된 업체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GS리테일·퓨엔코 등 5개사다.

/윤다혜기자 yoh@metroseoul.co.kr

오지랖 파란 하늘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이 물러간 26일 오전 파란 하늘이 드러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화성 화홍문 주변을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도 '인육캡슐' 밀반입

올해 14건·5천정 적발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육 캡슐'이 최근에도 국내에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으로, 적발된 물량은 6만6149정에 달했다.

2011년 22건(1만2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1건(2만7852정) 등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14건(5110정)이 적발됐다.

반출국은 대부분 중국이었지만 지난해 6월에는 미국발 특송화물로 인육 캡슐 270정이 국내에 밀반입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인육 캡슐은 복용하면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데 피부나 자양강장에 좋다는 잘못된 의약상식이 퍼져 있다"며 "공권력을 동원해서 유통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수해현장 복구 구슬땀 26일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시장 마을에서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물에 잠겼던 가재도구를 건물 밖으로 옮기는 등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 사고버스 7명 탑승 확인

블랙박스 1차 판독… 실종자 6명 수색 난항

25일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 폭우로 부산과 경남지역은 5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26일 비가 그치며 침수된 철도와 도로 등은 속속 정상화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덕곡천 급류에 휩쓸린 시내버스에는 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 버스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 1차 분석작업을 벌인 결과 운전기사 정모(52)씨를 비롯해 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직후 숨진 채 발견된 안모(19·대학 1년)양을 포함해 실종자는 운전기사 정씨와 이모(61·여)씨, 박모(40)·이모(33·여)씨 부부, 김모(19·여)양,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50대 여성 등 6명이다.

합동대책반은 300여 명의 인원과 20여 척의 선박 등을 동원해 사고 현장인 덕곡천을 비롯해 진동항과 광암항 일대 해안가와 바다를 수색하고 있다.

블랙박스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고 버스가 집중호우로 정상 노선 교통이 통제되자 농로를 우회해 운행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버스는 25일 오후 2시5분 정해진 노선을 이탈했고, 사고 직후인 2시 53분 통신이 완전 끊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mkim@

수억 횡령 동양그룹 임원 추가 확인

검찰 5억 뭉칫돈 계좌 추적

검찰이 동양그룹을 수사하면서 경영진이 횡령한 뭉칫돈을 추가로 찾아내 사용처 확인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동양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 임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5억원 가량의 뭉칫돈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이 발견됐다.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돈이 카드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는 속칭 '카드깡' 등 여러 수법을 통해 마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권 등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과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윤다혜기자

생보재단, 기억키움학교 개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성북구는 26일 성북구치매지원센터에서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인 '기억키움학교' 개소식을 개최했다.

기억키움학교는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낮 동안 전문적인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치매 증상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준다.

이날 행사에는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 생보재단 유석쟁 전무 등이 참석해 앞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경증 치매어르신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유 1행 왼쪽 다섯 번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와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26일 성북구치매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억키움학교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보재단 제공

생보재단은 2011년부터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9개 복지관·서울시 4개구의 치매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경증 치매어르신 전용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보건公,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예방문화 정착'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세계 안전보건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예방문화의 정의 및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예방문화의 정의 및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백 이사장은 발표를 통해 "각국의 예방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양질의 고용실현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혈빙학회, 국제학술대회

국제혈빙학회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대학 본관 31층에서에서 모스크바대학과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베르나드스키이성론의 현대적 의미와 혈빙연구'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박연관 국제혈빙학회 회장은 '지속적인 세계 발전을 위한 철학'에 대해 발표했다.

개학 앞두고 붐비는 서점 초등학교 개학과 본격적인 신학기를 앞둔 26일 서울 광화문 대형서점에서 초등학생과 학부형이 신학기 참고서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甲질 시장실로 신고"

박원순 서울시장 공직개혁 2탄… 계약서에 '갑을' 용어 없애

서울시가 공직혁신 2탄으로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갑질'을 일삼은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시민과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갑을 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다', '인허가 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방문이나 현장 확인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등 공무원이 따라야 할 행동 강령도 제정했다.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박 시장은 "갑과 을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시청이 생산한 계약서에서만 1만 1130번 등장했다"며 "계약 관계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갑의 행태를 받았다고 여겨지면 저한테 직접 고발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원순씨 핫라인'을 만들어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내용을 올리면 시장이 책임지고 사실 관계를 밝힐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무분별하게 주어진 '재량권'에서 나온다고 보고 재량권 행사 기준과 원칙을 담은 지침도 제정해 연말에 공포한다.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협력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10대 분야 '갑을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을의 항변대회'도 내달부터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軍 가혹행위로 정신분열 '유공자'

2년여 소송 끝 잇따라 승소 판결

군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얻은 이들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에서 잇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009년 4월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 훈련소에 입소한 A씨는 선임병들에게 구타와 성추행을 당했다. 결국 A씨는 자대배치 두 달여 만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폭한 행위를 하는 조울증 증상을 나타냈다. 군 병원에 입원해서도 "병유로 가야하는데 감정조절을 못해 병원에 왔다"고 소리치는 등 망상 증세를 보이다가 2009년 11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A씨 측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광주지방보훈청에 신청했지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2009년 8월 육군에 입대한 B씨도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으로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전역 후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계속돼 창원보훈지청에 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26일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최근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은영기자

노인들의 '꽃가루비킷 챌린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 노인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방 이양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도중 최근 유행하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본따 얼음물 대신 꽃이 꽃가루를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년간 남 이름으로 공짜 병원 이용

서울 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혐의로 임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씨는 2009년부터 5년간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서 총 270여회에 걸쳐 정모(56·여)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6년 전 정씨에게 대출 중개업자를 소개해주면서 우연히 개인정보를 알게 된 이후부터 정씨 이름을 대고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임씨는 명의를 도용해 740만원 상당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정씨가 병원 등에서 자주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관할 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윤다혜기자

전두환 땅 사들인 50대 "압류 풀어달라"

"불법 재산인 줄 몰라" 소송

검찰이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측의 토지를 사들인 50대 남성이 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8)씨로부터 서울 한남동 땅 546㎡를 사들인 박모(51)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추징할 수 있다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이 땅을 압류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국(55)씨가 아버지 비자금을 이용해 이씨 명의로 한남동 땅을 사들인 뒤 2011년 박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토지 매입 당시 이씨를 포함한 지분 소유자들에게 총 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매각대금도 추징했다.

하지만 박씨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으로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서울고법에 제기한 상태다. /윤다혜기자 ydh@

스미싱·파밍·피싱… 사기 종합세트

각종 수법 동원 10억 챙겨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메신저피싱·조건만남 빙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빙자 등 각종 사기 수법을 동원해 석달간 10억원을 챙긴 사기단의 인출책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29·무직)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사기단 총책의 지시로 5월 19일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입금받아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청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저지르고, 악성코드 문자로 빼낸 개인정보로 돈을 가로채는 등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모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3개월 동안 범행을 저지른 일선에 10억원을 송금한 이체내역도 확보, 추가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美 시리아 공습 임박?

오바마, 정찰비행 허가 – 국경인근 군사작전 검토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 공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정찰비행을 허가했다. 이에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의 정찰비행 허가는 공습의 전조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시리아에 드론(무인항공기)과 U2 정찰기를 보내 정찰비행에 나선다. 정찰비행은 미국이 시리아에서 직접적인 군사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리아의 내전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NYT는 풀이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미국은 시리아의 허락없이 영공에 진입한 바 있다. IS가 참수한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 등을 구출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이번에도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정찰비행 일정을 알리지 않을 계획이다. 알아사드 정권은 몰아내기 위해 쓴 부은 그간의 노력이 IS 격퇴 과정에서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급적 시리아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알아사드 정권의 협조 없이 미국이 시리아에서 IS를 몰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리아는 테러 척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국 정부의 승인 없이 이뤄지는 공격은 침략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IS가 이라크에서 '인종·종교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필레이 대표는 25일 성명을 통해 "IS가 기독교인·야지디족 등 비아랍족과 비수니파 이라크인을 살해하고 개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광범위한 인종·종교 청소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흰색정장 입은 사람만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배터리 파크 시티에서 열린 '하얀 저녁식사' 행사에서 흰색 정장을 차려입은 참가자들이 만찬을 즐기고 있다. 이 행사에 참가하려면 흰색 의상만 입어야 한다. /AFP 연합뉴스

아이스버킷챌린지 '주의보'

영국 10대 사망 – 루게릭 환자돕기 의미 변질 우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아이스버킷챌린지(얼음물 샤워)에 참여한 10대가 사망, 논란이 일고 있다. 루게릭 환자를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좋은 행사가 의미 없는 '살인 행사'로 변했다는 지적이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메런 랭카스터(18)가 전날 절벽에서 24m 아래 물웅덩이로 뛰어내려 익사했다.

랭카스터는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랭카스터가 아이스버킷챌린지의 첫 번째 희생자로 보인다고 전했다. 랭카스터의 가족은 다음달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자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사고는아이스버킷챌린지에 대한 비난이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발생했다.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모금행사가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위한 놀이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올해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유명인사가 대거 참여, 세계적으로 '얼음물 뒤집어 쓰기' 열풍이 불면서 실제로 모금액은 엄청나게 늘었다. 하지만 폭발적인 인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한 여성은 말을 탄 채 아이스버킷챌린지를 하다가 낙마해 크게 다쳤고, 미국 대학생들의 아이스버킷챌린지 현장을 정리하던 소방관 4명이 감전되는 사고도 있었다.

/조선미기자

"에볼라 확산 막으려면 4억3000만 달러 필요"

세계보건기구(WHO)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약 4억3000만 달러(약 4386억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WHO는 앞으로 2개월 안에 상황을 진정시키고 6~9개월 안에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규모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WHO는 비용의 절반 이상이 에볼라 환자 치료와 격리, 의료 센터 설치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중부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도 에볼라가 발견됐다. 민주콩고 보건 당국은 24일 에볼라 바이러스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환자 2명을 발견했으며 모두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에볼라 바이러스는 서아프리카에 이어 중부 내륙까지 확산됐다.

/조선미기자

Украину спасли от суицида

"전쟁 반대!" 어린이 패션쇼

metro Russia

10세 소녀 기획 눈길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계 각국 어린이들이 이색 패션쇼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어린이'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패션쇼 관계자는 "알리타 안드리쉐프스카야라는 10세 소녀가 이 패션쇼를 기획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안드리쉐프스카야는 세계 어린이는 모두 친구라는 점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패션쇼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며 "단지 안드리쉐프스카야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접하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패션쇼 관계자는 "쇼가 진행되는 동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며 "무대 음악과 어린이 모델의 멋진 워킹 덕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쇼의 배경음악은 전쟁의 잔혹함을 연상시키는 총소리에 빠르고 힘있는 사운드가 결합됐다"며 "어린이 모델들은 장난감 총을 손에 쥔 채 각국의 국기와 국화를 모티브로 한 의상을 입었다"고 전반적인 무대 분위기를 설명했다.

안드리쉐프스카야는 "러시아·미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중국·그리스를 대표하는 친구들이 패션쇼에 참가했다"며 "패션쇼의 피날레는 우크라이나 모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을 대표하는 친구들이 손에 총을 쥔 채 대립하지만 총에서 꽃가루가 휘날리며 화해하는 끝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든다. 세계 어린이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렉세이 쉬레퀸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숨겨둔 지폐 '낙타' 변신

metro HongKong

흰개미가 갉아먹어

중국 노인이 숨겨 둔 지폐를 개미가 갉아먹어 낙타 모양으로 변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푸젠성 진장시에 사는 70세 노인 자이(翟)씨는 1만 위안(약 165만 원)이 넘는 현금을 목제 옷장 속에 숨겨뒀다. 돈이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했던 노인이 7~8년 전부터 돈을 보관해온 방법이었다. 최근 한 달 만에 다시 돈을 확인해본 노인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흰개미 떼가 돈을 갉아 먹어버려 돈이 잔뜩 훼손됐기 때문이다.

노인의 말은 망연자실한 어머니와 함께 돈을 정리했다. 흰개미가 갉아먹은 지폐는 낙타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백 위안 짜리 지폐 몇 개가 낙타봉과 네 다리, 꼬리가 모두 있는 낙타의 모양과 흡사했다. 노인은 훼손된 돈을 들고 은행을 찾았다. 결국 노인의 손에 들어온 돈은 겨우 1950위안(약 32만 원)이었다.

은행 관계자는 "많은 어르신이 돈을 집에서 보관하는데 좀도나 화재로 사라질 수 있다"면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코스닥
2066.05 (+7.14)	568.24 (+3.84)

금리	환율
2.54 (-0.03)	1016.80 (-3.20)

뉴스&뉴스

"제철 홍합 드세요" 26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홍합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찬 바람이 불어 살이 통통하게 차오른 홍합을 27일까지 시세보다 20% 저렴한 390원(100g)에 판매하고, 홍합살은 1490원(100g)에 내놓는다. /이마트 제공

중기 경기전망지수 반등

●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중소 제조업체 수가 다섯 달 만에 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제조업체 1367곳을 대상으로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전월(81.6)보다 7.0포인트 오른 88.6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SBHI는 올해 4월 96.6을 기록한 뒤 지난달까지 줄곧 내림세를 보이다 이달 들어 반등했다.

이는 계절적 비수기가 끝난데다 최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기준금리 인하가 잇따르면서 재정·금융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황 방한 기념주화 대박

●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기념해 나오는 한국은행의 기념주화가 9년 만에 최대 물량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26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1~22일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 받은 판매 예약에서 은화는 11만2700여개, 황동화는 9만9900여개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교황 방한 기념주화의 발행 한도인 은화 3만개(액면가 5만원), 황동화 6만개(액면가 1만원) 등 모두 9만개가 전량 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5년 8월 발행된 광복 60주년 기념주화의 5만2000개에 이어 단일 기념주화로는 9년만에 최대 물량이다. /김민지기자 minj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서린동) 무교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억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3
독자센터	02)721-9861

2005년 5월 24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아 00000

삼성SDS 이틀만에 514% 급등

비상장 우량주 거래 'K-OTC' 시장 순항

장외 주식거래 시장인 프리보드를 개편한 'K-OTC' 시장이 개장 이틀째 순항했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fia Over-The-Counter Market)의 약칭으로 지난 20일 신규 지정된 56개사를 포함,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른 총 104개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전날 출범한 K-OTC 시장은 비상장 주식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프리보드를 개편해 새로 문을 열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금투협이 사설 웹사이트에서 거래되던 비상장 기업들 가운데 장외 수요 등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종목을 모아놓은 곳이 K-OTC라고 보면 된다"며 "금투협이 정규 거래소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자율규제 기능을 하므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편의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분명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K-OTC 시장에서 종목을 사고 팔려는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주식과 유사하게 매수·매도 주문을 내면 된다.

투자자는 증권사가 고지하는 비상장 주식투자 위험성 등의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주문을 낼 수 있다.

26일 K-OTC 시장에서는 47개 종목이 13만4499주, 9억7962만원어치 거래됐다.

개장 첫 날인 전날에 51개 종목에서 17만7923주, 3억6303만원어치 거래가 성사된 것과 비교해 거래주식 규모는 줄었지만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

특히 K-OTC 시장의 전신인 프리보드 시장에서 지난 2월 3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 7억5293만원을 훌쩍 웃돌았다.

이날 거래 형성률은 41.96%로 첫째 날(45.54%)보다는 소폭 낮았다.

K-OTC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30%이며 신규 등록 후 최초 매매개시일에는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30~500% 범위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매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K-OTC 시장의 대장주는 삼성SDS이다.

삼성SDS는 첫 날 23만8000원으로 기준가 대비 400.53% 급등하고서 이튿날 5만9500원 더 올라 29만7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SDS는 전날 매수 주문이 쏟아지지만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아 거래량이 36주에 그쳤다. 반면 26일엔 2137주가 거래되며 K-OTC 시장의 최다 거래대금(6억2348만원)을 유지했다.

이날 거래대금 2~5위는 미래에셋생명(8931만원), 내일신문(6664만원), 포스코건설(4639만원), 케이비파워텍(2673만원) 순이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원덤에너지(3만1352주), 하이투자증권(2만1826주), 산타크루즈(1만7302주), 미래에셋생명(1만868주) 등이다.

다음달 K-OTC 시장의 지정 기업이 추가되면 관심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황 실장은 "다만 장외시장은 정규 거래소와 달리 투자자 보호의 이슈가 크지 않다"며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만큼 투자에 따른 손익과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금융노조 다음달 3일 총파업 가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다음달 3일 총파업을 두고 2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오후 8시 현재 91%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달 3일 7만여명의 금융노조 조합원이 하루 파업을 벌일 책정이다. /연합뉴스

국세 환급금 544억원 납세자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청 환급금이 지난 5년간 544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지난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5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실제 환급 건수가 36.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환급사실을 통보한 후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지나도록 찾지 않은 금액으로 5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안내하고 있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서민·중산층 살림살이 갈수록 팍팍

적자 가구 비율 2~3년래 최고

서민과 중산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2~3년 만에 가장 높아 이들 계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적자가구 비율은 23.0%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적자가구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를 말한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서민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2분위(소득 차하위 20%)의 적자 가구비율은 26.8%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1%포인트 늘어났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12년의 28.1% 이후 가장 높았다.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3분위(소득 상위 40~60%)의 적자가구 비율은 19.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의 20.4%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분위와 3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다른 분위보다 비교적 낮았지만 소비지출 증가율은 다른 분위보다 높아 이들 계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2, 3분위 가구의 작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은 각각 1.9%와 2.6%로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 2.8%를 밑돌았다. 또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2.4%)를 제외한 1분위(소득 최하위 20%)의 5.0%와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3.3%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2, 3분위의 2분기 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3.6%와 5.8%로 전체 가구(3.1%)는 물론 1분위(0.7%)와 4분위(0.7%)보다 높았다. 5분위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3.6%였다.

특히 2, 3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의 2배 정도에 달해 부진한 소득 증가세가 소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부채도 또다시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가계신용은 1040조원으로 3개월 전보다 15조1000억원(1.5%)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1년 전에 비해 60조4000억원(6.2%) 늘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GDP) 증가율인 3.7%를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황주원기자 bos@

'금융권 보신주의' 이번엔 타파될까?

제재 90% 이상 감축 당근책…창조금융 활성화 대책 내놔

금융권에 만연한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당근책을 꺼내들었다.

과도한 제재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없애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금융사 직원 제재 감축과 기술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실천계획에는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지금보다 90% 이상 대폭 감축키로 했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어 온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감독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 역량과는 별개로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만 줄이고 금융회사에 조치의뢰하는 부분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혁신성적 평가제'가 도입돼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 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혁신성평가는 기술금융 역량이나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이 등급은 공개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술금융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혜택과 지원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하반기중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자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9월 중 미래부, 산업부 등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3대 실천계획>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온렌딩 기술신용대출 활성화	성장사다리펀드 역할 강화	감독당국의 과도한 제재관행 개혁
기술 가치 평가 투자 확대	창업투자자금 확대	금융회사 내 인사상 불이익 근절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무지 협의)	성장·회수지원 활성화	은행혁신성제도 도입
기술금융 우수사례 성과 확산	지원시장 활력회복	사후적발 검사관행 개선

금융권 징계 내달에도 계속

KB 임직원 80여명에 대한 징계가 일단락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 금융사 임직원 120여명에 대한 징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부터 우리·하나·신한은행과 외국계 은행, 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 달 가까이 진행된 KB금융 관련 제재로 여타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가 늦어졌다"며 "임시 제재심을 열어서라도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선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이미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CJ그룹의 차명계좌 수백개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또 파이시티 사업 의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임직원 수십 명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ENS 협력업체의 사기 대출에 연루된 하나·국민·농협은행과 10여개의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열린다.

이 중 1600억원의 손실을 본 하나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규모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이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받을지도 관심사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드러난 일부 부실에 대해서도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역시 직원들의 불법 계좌 조회로 제재가 예정돼 있다.

올해 초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SC은행과 씨티은행 임직원들도 징계를 받고, 카드 3사의 경우에는 중징계가 대거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롯데카드는 사고와 관련된 전직 대표이사와 전산담당 임원이 모두 해임 권고 처분을 통보 받았다. 카드 3사 중에서는 정보 유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카드가 징계 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illegible]

외환은행 직원, 헌재에 탄원서 외환은행 직원노조가 26일 금융위가 2·17 합의를 위반할 경우 행복추구권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합병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제출된 탄원서에는 외환은행 직원 5117명이 참여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제공

고객이 원하는 '맞춤 귀금속' 웨딩 주얼리 전문브랜드 에이.에스 ADEE가 부산에 문을 열고 독일 업체 브랜드인 아크레도(Acredo) 귀금속을 고객이 원하는 모양과 가격으로 갖추는 시연회를 열었다. 여성들이 26일 자신이 원하는 귀금속 디자인을 컴퓨터 화면으로 미리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기부금 세액공제액도 기부한다

장려금제 2016년 도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또 다시 기부하는 기부장려금제도가 도입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의 기부장려금 제도를 2016년 기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 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납세자가 200만원을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해당액의 15%인 30만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 돈까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방식대로 하면 기부단체로 유입되는 기부액이 200만원이지만 기부장려금제까지 활용하면 기부액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에서 기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에게 주던 장려금이 기부금 단체로 흘러가게 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만 기부장려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국세청장이 매개 투명성과 사후 관리 등을 감안해 추천하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기부금 단체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5년간 지정 단체 신청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장치도 뒀다.

정부는 기부자가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에게도 내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신고하는 추계신고 대상으로, 기존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대주주 등 비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 등에 현금을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주영기자

현대차, 하이브리드 전용차 제작

130 차체 얻어 미국 서부 사막서 테스트 중

현대자동차가 토요타 프리우스에 맞서는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해외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오토블로그닷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대 i30의 차체를 씌운 이 차는 토요타 프리우스와 함께 미국 서부 사막을 오르내리며 혹서기 테스트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미국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장에서 현대차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현대차는 2011년에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선보였으며 2015년형 버전은 16.2km/ℓ의 연비를 나타낸다. 그러나 21.3km/ℓ의 연비를 자랑하는 토요타 프리우스가 이 시장의 리더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다.

스파이 샷에 등장하는 모델은 i30로 위장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 개발되는 차다. 현대차는 2010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전용 콘셉트카 '블루윌(Blue-Will, HND-4)'을 선보인 바 있다.

블루윌은 최고출력 154마력 1600cc의 감마 GDI HEV 엔진과 100kw 모터,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탑재하고 무단변속기를 적용했다. 1회 충전 시 모터만으로 최대 약 64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배터리 전력 소모 후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 시에는 21.3km/ℓ~23.4km/ℓ의 연비로 가능하다. 솔라셀을 내장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적용해 냉난방으로 인한 동력손실을 줄였고,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를 적용한 차체 경량화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부품 적용으로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췄다.

현대차는 프리우스와 프리우스 V를 이번 테스트에 포함시키면서 두 모델을 동시에 대응하는 차종을 개발하고 있다.

테스트 모델은 별도의 충전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차는 그동안 쏘나타 PHEV를 개발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양산차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을 출시하고 나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준중형 전기차를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송혜민기자 ferrari@metroseoul.co.kr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모집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이 대학생 자원봉사단인 'Sunny'가 창의적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청년 리더로 성장하기 원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4 하반기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SK Sunny는 지난 2003년부터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라는 SK 사회공헌 자산을 계승해 왔다. 특히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 주도적 실천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주도해 왔다. 현재 한국 10개 지역 및 중국 5개 지역에서 연 3500여 명의 SK Sunny가 사회혁신을 리드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써니스쿨(창의인성교육) '하이티처' '담사랑(벽화봉사)' ▲노인 소외예방을 위해 1~3 세대가 교류하는 '행복한 밥상' 모두의 '마술관' '행복한 모바일 세상' ▲장애로 인한 장벽을 없애기 위한 써니 투게더 '사운드 투어가이드' 프로그램 등이 있다. /김태균기자 ksj@

SK Sunny '대학생 자원봉사단 활동사진. /SK 제공

LG디스플레이, 中 최초 녹색제조 인증

LG디스플레이(대표 한상범)는 26일 LG디스플레이 차이나(LGDCA)가 중국 친환경 정책에 참여한 결과 8.5세대 LCD 생산 공장이 중국 최초로 '녹색제조 공장'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녹색제조 인증제도'는 제품의 생산, 사용 및 폐기 등 제품의 모든 수명주기에 대한 친환경적인 접근뿐 아니라 환경법규 준수, 각종 경영 관리 지표 등을 통합한 중국의 새로운 친환경 산업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이 제도를 전자업계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산업영역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중국 8.5세대 LCD 생산공장의 설계 단계부터 국내에서 발전시킨 환경친화적인 생산전략을 적용하고 동시에 국제표준 시스템을 적용해 단시일내 에너지경영(ISO50001), 환경경영(ISO14001), 안전보건경영(OHSAS18001)등 7개의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기초설비 구축 ▲환경법규 준수 ▲에너지/자원 관리 ▲경영체계 구축 ▲친환경 제품생산 ▲환경친화적인 성과지표 달성 등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포함하는 녹색제조 인증제도의 6개 분야 32개 필수항목에 모두 합격해 중국 최초로 녹색제조 인증을 획득했다. /김태균기자

미래의 스마트 가정은 이런 것 삼성전자는 다음달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4'에서 '삼성 스마트홈'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들을 선보인다고 26일 전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모델이 스마트폰과 냉장고를 '삼성 스마트홈' 기능으로 연결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지금이 기회…재건축 수주전, 닻 올랐다

최근 몇 년간 침체일로를 걷던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올 들어 잰걸음을 보이면서 조합과 건설사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조합, 정비사업을 수주하려는 건설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23개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선정총회를 진행했다. 주택시장 특히 재건축아파트의 회복세가 뚜렷한 데다 조합원이 2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성이 높아진 덕분이다.

여기에 수도권에서는 과천 주공7-1단지, 대치동 국제, 서초동 삼호가든4차, 서초구 방배5구역, 잠원동 신반포6차 등 강남권 일대 사업장을 비롯해 사업성이 떨어져 몇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던 공릉동 태릉현대아파트까지 시공사를 찾았다.

한때 수주한 시공권마저 포기한 건설사가 속출했을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부산은 올해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벌써 7개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고, 대연4구역과 명장1구역은 오는 30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대림산업과 삼환종합건설이 승부를 가린다.

하반기 수주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당장 이달 말 수도권에서만 6곳에서 시공사 선정총회 및 입찰에 들어간다. 이 중에는 삼성동 삼아3차와 목동 목1구역 등 소위 노른자위라 평가되는 곳에서 주민총회가 이뤄진다.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의 시공사 선정총회가 잇따르다보니 건설사들의 수주전도 덩달아 활발해지고 있다. 대형건설사 상당수가 재개발 재건축 부문 수주 목표액을 1조원 이상으로 설정한 가운데 대림산업은 이미 1조원이 넘는 실적을 올렸다.

또 GS건설이 미아3구역, 방배5구역(컨소시엄), 신반포6차의 사업을 따냈고, 롯데건설은 사당2구역, 방배5구역(컨소시엄), 사당2구역, 광명철산주공7단지(컨소시엄)의 시공권을 수주했다. GS건설은 삼아3차, 롯데건설은 목1구역에서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는 상태다.

/박선옥기자 pso@

우리 아들도 리틀야구 시킬까 한국 리틀야구가 29년 만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야구용품 코너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LGU+·SKT 영업정지…불법보조금 살포 야기?

추석 연휴 전후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KT에 약될까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27일부터 각각 일주일간 순차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통신업계는 이번 순차 영업정지로 오히려 불법 보조금 살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 올 상반기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76억1000만원(당초 82억5000만원에서 행정심판 통해 일부 삭감), KT에 55억5000만원 등 총 298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매겼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주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당초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14일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명백히 1순위 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7일 영업정지로 단축됐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5~6월 불법 보조금 살포 건을 포함해 제재안을 강화했다. 5~6월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는 SK텔레콤이 꼽혔다. 방통위는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에 추석 전과 추석 후를 두고 영업정지 선호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연휴 직후 신규 가입자가 많은 점, 9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애플 '아이폰6'의 출시가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해 추석 연휴 전 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단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번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순차 영업정지로 인해 KT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가 최대 성수기라는 점에 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만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또다시 불법 보조금 살포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로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이통3사 중 한 업체가 불법 보조금 살포를 하게 되면 또다시 출혈 경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특히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6의 출시가 예정되면서 기존 재고 재분을 위해서라도 불법 보조금 경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추석을 전후해 보조금 경쟁 촉발을 야기할 매개로 보인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불법 보조금 살포로 가입자 급증이 어려워 진다. 따라서 이전에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이 짧은데다 소비자들도 시장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불법 보조금 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 영업정지와 관련해 시장과열의 분위기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제재도 예상되는 만큼 이통사도 출혈 경쟁은 지양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ljy0402@metroseoul.co.kr

스마트기기 케이스도 '필수품'

슈피겐 전국 이마트 23개 지점 입성

모바일 액세서리 글로벌 명품 브랜드 슈피겐이 전국 이마트 '애플샵' 23개 지점에 입점한다.

이는 스마트기기 케이스와 같은 제품이 일상 용품으로 자리잡았음을 시사한다.

슈피겐은 26일부터 이마존 간략시 시리즈의 케이스와 액정보호필름, 액정보호용 강화유리를 비롯해 아이패드 액정보호필름 등 총 25개 제품을 판매한다.

슈피겐은 이마트 애플샵 입점을 기념한 이벤트도 연다.

이마트 애플샵에서 슈피겐의 베스트셀러 케이스 '아이폰5/5s용 네오하이브리드 EX' 등 시연 결번의 프레임을 추가로 하나 더 증정한다.

이번 행사는 제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박성훈기자

실제 도로가 보이는 내비게이션 26일 서울 중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홍보모델들이 비디오형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인 'U+ 내비 리얼(Navi Real)'을 선보이고 있다. 이 앱은 실제 도로사진인 로드뷰(roadview) 기반의 화면에 주행 중인 차량이 교차로 전방 300m 지점에 접근하면 실제 도로 모습이 내비게이션에 나타나 이용자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손진영기자

스마트폰 사진이 PC에 자동저장

에이수스 유·무선 공유기 공개

유무선공유기를 이용해 스마트폰·PC 태블릿에 흩어진 자료를 손쉽게 동기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에이수스는 26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이같은 장점을 지닌 듀얼 밴드 기가비트 유무선 공유기 신제품 'RT-AC66U'와 'RT-AC68U'을 공개했다.

이 제품들은 802.11ac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된 고급형 기가비트 유무선 공유기로 5세대 와이파이(WiFi)를 지원한다. 우선 RT-AC66U는 2.4GHz 최대 450Mbps, 5GHz 최대 1300M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해 1750Mbps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네트워크 환경을 자랑한다. RT-AC68U는 2.4GHz 대역폭에서 33% 증가된 최대 600Mbps의 속도를 제공하고, 5GHz 대역에서는 무려 1300MHz의 속도까지 발휘한다.

특히 AI 클라우드 기능을 탑재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디바이스를 손쉽게 동기화 할 수 있다.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처럼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바로 PC 특정폴더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프린터 서버, FTP 서버 구축 등의 기능도 들어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손동작 하나로 앱 실행되네~"

동부하이텍, 스마트폰 터치칩 개발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 있는 대기 모드에서도 간단한 제스처만으로 특정 앱을 원하는대로 동작시킬 수 있는 '노크코드' 터치센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다.

동부하이텍은 스마트폰 내기화면에서도 동그라미를 그리는 등 특정 제스처를 취하면 자동으로 앱 실행과 조작이 가능한 터치스크린 칩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터치스크린 칩은 보통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지만 동부하이텍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터치스크린 칩에 미세한 전류를 흐르게 해 저전력에도 동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터치 감도를 높였다.

휴대 화면을 켜지 않고 앱을 바로 구동할 수 있어 전력소모도 줄일 수 있다.

동부하이텍 측은 "이번에 개발한 터치스크린 칩 기술에 대해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다"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아마존 게임영상업체 인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을 성사시켰다.

아마존은 26일(한국시간) 비디오 게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를 9억7000만 달러(99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2011년 탄생한 트위치는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게이머의 모습이나 게임 플레이 화면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여 주는 서비스다.

주요 게임 대회 생중계나 스타 게이머의 플레이 장면을 보려는 시청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게임 콘솔 자체에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포함되면서 시장 역시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트위치 회원 수는 5000만명에 달하며 일일 접속자 수도 700만명에 이른다.

재미있는 점은 당초 구글이 트위치를 인수하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구글이 트위치와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난달 구글이 10억 달러에 트위치를 샀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박성훈기자

인재 사랑, 세계 최고 기술로 '활짝'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바이오스페이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바이오스페이스 사옥 로비에 걸려 있는 캐치프레이즈다. 글로벌 일류 기업들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 기기분야에서 이같은 문구를 당당히 내걸 수 있다니 대단한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바이오스페이스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

◆ 인바디, 체성분 검사 대명사

바이오스페이스의 자랑거리인 체성분분석기 '인바디(InBody)'는 건강검진센터나 헬스장을 방문하면 반드시 만나는 제품이다. 체중계처럼 생긴 발판에 맨발로 올라가 금속 손잡이를 잡으면 1분 내에 신체의 근육, 체지방량 등을 분석해 올바른 운동방향을 제시해준다. 기존에도 개략적인 체지방량을 측정해주는 장비는 있었지만 복부·팔·다리 등 신체를 부위별로 분석하는 기술은 바이오스페이스가 최초다. 특히 오차범위가 1.5% 이내에 불과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 220여 편의 국내외 논문에 인용되고 80여 개국의 세계 특허 인증을 보유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다. 현재 70여국에 수출되며 세계 1위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영업성과도 뛰어나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367억원, 영업이익은 30% 늘어난 65억원에 달한다. 특히 1996년에 설립된 이후 18년 연속 흑자다.

류경호 부사장은 "바이오스페이스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독창적인 제품 개발로 창출하고 있는 히든 챔피언"이라며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체성분분석기 '인바디'는 병원·헬스클럽 등에서 체성분 검사의 대명사처럼 쓰일 정도로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장·부사장 멘토링 직접 참여

바이오스페이스가 이같은 기술력을 확보한데는 독특한 사내제도가 큰 기여를 했다.

바이오스페이스 직원들이 사내 전시실에서 새로나온 제품을 체험해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과제업무제도·CEO양성과정 눈길
각종 인센티브… 직원 사기 쑥쑥
세계 점유율 1위… 18년 연속 흑자

과제업무제도가 대표적이다. 스스로 세운 업무목표를 과제로 설정하면 사장과 부사장이 멘토로 참여해 달성을 돕는 방식이다. 신입 사원들이 자연스럽게 회사 임원들의 살아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스타과제로 선정되면 3년간 매월 30만~80만원의 인센티브도 준다.

인바디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인바디 감사제도'를 통과해도 매월 5만~10만원의 보너스를 받는다. 업무결과에 따른 성과급도 물론 따로 있다.

노력에 따라 3000만원대 초반인 대졸 초임 연봉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챙길 수 있다.

CEO의 꿈을 미리 펼쳐보는 것도 가능하다. '모든 직원들이 CEO를 경험해봐야 한다'는 사내 철학에 따라 미래 CEO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덕분이다. 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법인의 설립과 구성, 운영에 이르는 과정을 본사에서 지원해 준다.

이밖에 지방출신 직원들을 위한 사택 지원, 아침식사·체력단련비 제공 등도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인재만 있으면 자리만들어 채용

바이오스페이스에 인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필요한 인원을 미리 정하고 채용을 진행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바이오스페이스는 일단 유능한 인재라고 판단하면 무조건 뽑는 것이 방침이다. 인재만 확보하면 자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채용공고도 특별한 시기를 정하지 않고 때때 올린다.

사내추천도 적극 활용한다. 추천으로 뽑힌 인재가 1년 이상 근무하면 100만원의 보너스도 준다. 이같은 제도들을 통해 올들어 새로 뽑은 인재는 47명에 달한다.

류 부사장은 "좋은 인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인재를 찾고 있다"며 "뛰어난 인재가 바이오스페이스 홈페이지 인재풀에 등록했다면 반드시 연락한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이런 인재를 원한다

배우려는 자세 높이 평가

"전공 수업만으로 부족함을 느껴 관련 학술동아리 활동을 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했던 구직자가 지원해 현재 개발팀에서 활약 중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류경호(사진) 바이오스페이스 부사장은 인재가 들어와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분위기가 매우 밝다

▶▶매주 화요일 전직원이 함께 회사 인근 구룡산을 등산하면서 소통하는 덕분이라 생각한다. 새벽부터 출발해 직원들의 불만이 높은 다른 회사와는 달리 바이오스페이스의 등산은 참여하는 전 직원들이 점심을 함께 먹은 후 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2시간여 등산 후에는 샤워나 휴식시간도 보장해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사옥을 이전한 이유도 직원들과 등산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인지 체중관리로 고민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

▶채용절차는

▶▶서류와 면접 진행 사이에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수학, 영어 필기 시험을 본다. 중학교 수준이라 어렵진 않고 커트라인 통과 여부만 가린다.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면접관이 원하는 답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합격하기 위해 자신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면접관들은 바로 알아챈다. 단점도 솔직하게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를 강조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영화 '마녀'보다 현실이 섬뜩

괴담보다 무서운 것 '출근'

'우리 회사에 무서운 신인이 들어왔다'라는 카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마녀' 못지않은 오피스괴담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영화 '마녀'의 개봉을 앞두고 직장인 623명을 대상으로 '오피스 괴담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50.1%가 있다고 답했다.

오피스괴담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사무실(27.8%)이 1위를 차지했다. 휴게실(25.7%)이 근소한 차이로 2위에 머물렀고 화장실(18.7%), 엘리베이터(8.5%)… 옥상(7.0%) 등도 오피스괴담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오피스괴담의 사례로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꺼졌다 켜졌다 하는 센서등', '야근 시간만 되면 들리는 으스스한 발소리, 목소리', '괴로사한 전 직원을 마주쳤다는 소문' 등 증명할 수 없지만 공포감을 자아내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괴담이 아닌 현실로 나타났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출근(23.1%)'이 최악의 공포로 꼽혔고 '나도 모르게 돌고 있었던 나에 대한 소문들', '매일밤 이어지는 폭풍야근'이 15.7%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이국명기자

공공데이터로 창업 도전해볼까

청년위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까지 할 수 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중소기업청과 함께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의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경진대회 홈페이지(www.startupidea.kr)를 통해 다음달 4일까지 하면 된다.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 등을 통해 국가포상은 물론 총 1억여원(대상 2000만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개발 사업화까지 한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에 입교할 수 있는 자격도 2개팀에게 준다. 창업 공간을 희망하는 수상자 2개팀에게도 '스마트세계로누림터' 입주 투자설명회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706개 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9807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똑같은 건 싫어!…"내건 내 취향대로 만든다"

유통업계, '커스텀 메이드' 마케팅 주목

내가 먹을 것, 쓸 것 등은 내가 직접 만든다.

최근 고객의 주문에 맞춰 제품을 제조하는 '커스텀 메이드' 마케팅이 활발하다. 남들과는 다른 각자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식·음료부터 패션·뷰티업계까지 고객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고객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먼저 오리지널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의 스무디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영양파우더를 더해 만든 맞춤형 음식이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개인의 기호와 컨디션에 따라 다른 맛과 영양을 갖춘 다만의 스무디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리듬 밸런스(유산균), 다이어트, 다운, 뷰티 콜라겐 등의 인핸서(영양 파우더)를 추가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다. 기분에 따라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스무디에 오렌지·블루베리·레몬·아몬드 등의 재료를 엑스트라로 추가하고 터비나도(사탕수수 추출 천연 당)를 조절해 칼로리를 낮추는 등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맛과 영양을 갖춘 다만의 스무디인 퍼스널 푸드를 즐길 수 있다.

대만 티 브랜드 '공차'는 음료 주문 때 각 음료별로 자신이 원하는 토핑·당도·얼음양까지 정해 취향대로 주문이 가능하다. 고객은 먼저 컵사이즈를 선택한 후 차·커피·주스 등 음료를 선택하게 된다. 이어 펄이나 코코넛, 알로에, 밀크폼 등의 토핑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어느 커피 전문점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어 당도를 0%~100%까지 5단계로 다시 선택할 수 있으며 얼음량도 0~100%까지 3단계로 주문할 수 있다.

주문 내용은 공차의 스티커 시스템을 통해 프린트 되며, 매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음료를 만들게 된다.

향 컨설팅 브랜드 '에데니끄'는 자사의 향수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성향, 체질, 사회적 위치 등 개인의 특성에 맞은 '퍼스널 향수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컨설팅은 향 선호도와 성격을 알아보는 테스트로 구성돼 있으며, 총 4가지 성향으로 분류되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고객이 직접 본인의 성향에 맞는 향을 선택하면 완제품을 제작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CNP차앤박 화장품은 최근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인 르메디(LeMedi)의 'LAB' 코너에서 고객들의 1대1 정밀 피부 측정과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보습제를 담은 화장품을 제작해서 제공해준다. 이 크림은 항온·항습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외부 환경에 의한 피부 변화가 아닌 본연의 피부 컨디션을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장성필기자 prms@metroseoul.co.kr

물에 녹여먹는 발포비타민

성분 함량 확인하고 용법·용량 지켜야

물에 타서 음료처럼 복용할 수 있는 발포비타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인기만큼 다양한 제품이 등장해 효능·효과를 정확히 알고 올바른 복용법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먼저 소비자들은 발포비타민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발포비타민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이다.

반면 바이엘 코리아의 '베로카 퍼포먼스 발포정' 등으로 대표되는 일반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을 말한다.

아울러 발포비타민이 복용이 수월하고 맛이 좋아 무턱대고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른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발포비타민 역시 제품의 정확한 용법과 용량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것이다.

또 제품 포장에 표기된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성분 함량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설탕이나 인공 보존제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 비타민 성분 외에 첨가된 성분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

유통업계에도 '커피 열풍' 한창

담배에 이어 커피 정수기까지 등장

커피소비량이 늘어가면서 커피를 활용한 제품들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커피 소비가 늘면서 커피 시장이 커다람에 따라 국내 기업에서는 커피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내놓으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기존 커피 전문점, 식음료 뿐만 아니라 작은 소품부터 정수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BIC프로모션코리아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디자인에 반영한 커피시리즈 라이터를 선보였다.

KT&G가 선보인 '레종 센 브레쏘'와 '에쎄 브레쏘'는 좋은 흡연 큰 인기를 얻고있다. 레종 센 브레쏘는 필터 속에 실제 커피원두 알갱이를 넣어 커피향을 냈으며, 부드러운 캐이블릿 등이 특징이다. 에쎄 브레쏘는 필터에 커피향을 내는 기존 방식에 더해 담배원료에 직접 향을 더하는 '2중 가향' 방식을 적용해 카라멜 마끼아또의 부드러운 커피향을 느낄 수 있다.

청호나이스가 얼음정수기와 캡슐커피머신을 접목한 커피얼음정수기 '휘카페'(사진)를 공개했다. 얼음정수기에 캡슐커피 머신을 접목시킨 세계 최초의 제품으로 출시 20일만에 판매량이 1500대를 돌파했다.

/김보라기자

탄산수 '트레비' 고준희 모델로 광고

화장 지워내고 상쾌함 강조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배우 고준희가 모델로 나선 탄산수 브랜드 '트레비'의 광고를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깔끔함과 상쾌함을 강조한 이 브랜드 음료의 스타일이 최근 국내 탄산수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브랜드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광고는 시청자들에게 한 층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아울러 남과 다른 스타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반영해 이와 어울리는 모델 출신 배우인 고준희를 모델로 선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광고는 '상쾌함의 높이가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준희의 화장을 지워내는 화면을 담아냈다.

/김학철기자

강강술래 "추석선물 프리미엄 식품세트 인기"

5만원 미만 가격에 단체주문 쇄도

추석이 열흘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세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에 따르면 5만원 미만의 가공식품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불황 여파로 가격대는 낮춘 대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mall.com), 전화주문(080-525-9292)을 통해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 중이다.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500ml/5팩 15인분)는 3만5800원, 소용량세트(350ml/6팩 10인분)는 2만2500원에 판매한다. HACCP 인증시설에서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 만들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또 냄비에 넣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가 간편하고 실온보관도 가능하다. 방부제·조미료·발색제를 넣지 않고 이물질 함입을 막기 위해 이중 포장 방식을 적용한 염원간식 갈비맛 석쇠가육포 선물세트(50g 12봉)도 5만1600원에 제공한다.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인 참참한우떡갈비세트(360g 3박스)는 4만2000원, 흑염소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햄돈너비아니세트(360g×3박스)는 2만5200원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증정되는 책은 가족·친구·연인은 물론 혼자서도 대중교통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여행 정보를 총 망라한 '자엽이 떠나는 주말여행 코스북'과 연봉·투자스타일·나이별로 변한 월급을 특별하게 만드는 93가지 비책을 정리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이다.

/정혜인기자

직접 완성하는 DIY 화장품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 강조

최근 뷰티업계가 사용하기 전에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완성하는 DIY형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이런 제품은 자신의 손으로 화장품 제조 과정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줘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또 제품의 신선함과 안전성, 그리고 효능을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로소피는 지난 22일 안티에이징 세럼 '타임 인 어 보틀 세럼'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개봉 전 '퓨어 에이지 디파잉 세럼(이하 세럼)'에 붉은색의 '비이 포텐시 비타민 c8 액티베이터(이하 액티베이터)'를 넣고 20초 정도 흔들어 사용한다. 세럼은 피부가 스스로 손상을 치유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액티베이터는 슈퍼 비타민 C로 구성돼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 소비자가 직접 세럼에 액티베이터를 넣어 안티에이징 효능을 극대화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처음엔 흰색인 제형이 연한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율의 '흰감국 미백 파우더 세럼' 역시 첫 사용 직전에 흰감국 성분이 담긴 미백파우더와 세럼을 직접 섞어 사용해야 한다. 파우더를 넣으면 미백 효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제조한 제품은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킨푸드는 지난 7월 VVIP 고객인 '구어메(GOURMET)' 회원만을 위해 '쫀쫀 보들 달걀팩 KIT'를 소량 한정으로 선보였다. 이 제품은 부위별 피부 고민에 맞는 흰자를 선택해 집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DIY 워시오프 팩이다.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달걀 흰자 파우더와 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달걀 노른자 팩 파우더에 첨부된 브러시로 베이스를 적당량 섞어 사용하면 된다. 스스로 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다가 개별 포장돼 위생적이라는 점에서 구어메 고객들에게 호응이 높았다.

또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제품을 변형시키는 '모디슈머'를 위한 제품도 눈길을 끈다. 아퓨의 '스마트 쿠션 케이스'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쿠션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화장소품이다. 비비크림·선밀크·리퀴드 파운데이션 등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쿠션 케이스에 담아 간편하게 휴대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쿠션 케이스의 알루미늄 접시에 넣고자 하는 내용물을 고르게 담고 그 위에 스펀지를 올려 흡수된 후 사용하면 된다.

/정혜인기자

자동차 냉장고
갤러리아명품관은 이태리 수입 자동차 피아트와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인 스메그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냉장고 '스메그 500'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은 피아트 자동차의 대표 모델인 친퀘첸토(Cinquecento)의 자동차 본넷 디자인을 형상화한 유로우 냉장고다. 100ℓ 용량으로 자동차의 본네트 후드를 누르면 냉장고의 문이 열리고 관심 계기판을 통해 콘트롤한다. 제작기간만 3개월이 소요됐다. /갤러리아백화점 제공

"더페이스샵과 함께 해외여행 가자!"

고객 감사 100% 당첨 스크래치 이벤트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달간 100% 당첨되는 스크래치 쿠폰 이벤트 '꽝 없는 100% 당첨 스크래치! 더페이스샵과 함께 해외여행 가자!'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한가위 연휴를 맞아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다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더페이스샵은 이 기간 전국 매장에서 3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100% 당첨되는 스크래치 쿠폰을 증정한다. 1등 50명에게는 여행사 하나투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만원 여행상품권을, 2등 300명에게는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30만 포인트를, 3등 500명에 10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또 1~3등을 제외한 모든 스크래치 쿠폰 고객에게 지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경품수령에 따른 제세공과금(22%)은 모두 더페이스샵에서 부담한다.

/정혜인기자

환절기 '오톨도톨' 거친 피부 매끈하게…

피부 수축·이완 반복하면 좁쌀 여드름 생겨 ··· 과잉 피지 조절해야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건조한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피부가 수축·이완을 반복하며 생긴 각질층이 오공을 막아 좁쌀 여드름이 생기기 쉽다. 에뛰드 에이솔루션 관계자는 "오돌도돌한 좁쌀 여드름이 있으면 화장 후에 오히려 피부가 거칠어보이기 쉽다"며 "여드름균 증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매끈한 피부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드름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묵은 각질과 모공 속 노폐물을 정리해야한다. 특히 트러블 피부의 경우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꼼꼼하게 세안할 수 있다.

좁쌀 여드름은 작지만 여러 개가 함께 올라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기자 마자 바로 관리해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스팟 전용 제품을 여드름 주변에 가볍게 발라주면 좋다. 대부분 피지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과잉 분비되는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어해준다.

여드름 흉터가 남은 부위를 감추기 위해 화장을 덧바르다 보면 더욱 자극을 받아 민감해지고 거칠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런 경우 천연유래성분이 함유된 PPS크림을 기초단계에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이지현기자

농협홍삼 한삼인, 추석맞아 최대 50%↓

농협홍삼 한삼인(대표이사 안종일)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한삼인은 다음달 10일까지 파우치 포장의 홍삼음료 '홍삼플러스'와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더블오 365', 씹어 먹는 비타민제 '홍선엘티비타민'을 50% 할인판매한다.

특히 풍성하게 구성된 '프라임 선물세트'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리에 판매 중이라고 업계 측은 전했다.

추석기획으로 내놓은 '프라임 선물세트'는 17만6000원으로 홍삼정프라임·더정직한홍삼·홍삼진명골·삼의환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가격대의 '보은 선물세트'와 '면홍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한편 이 브랜드의 모든 제품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농협과 직접 계약 수매한 국내 고려인삼을 사용하며 홍삼의 주원료인 수삼 역시 까다로운 기준을 거쳐 가공된다. 제품을 생산하는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공장은 홍삼제조시설 단일시설 중 최대 규모다.

/김학철기자

평범함이 트렌드…'놈코어' 스타일 주목

본격적인 가을을 앞둔 패션계는 '놈코어(Normcore)'에 주목하고 있다. 놈코어는 노멀(normal)과 하드코어(hardcore)의 합성어로,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평범함을 추구하는 스타일을 일컫는다. 이 단어는 올해 초 위키피디아 명문판에 등재되기도 했으며 '힙스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알려졌다.

후드나 청바지·셔츠·블라우스 등의 기본 아이템과 캐주얼한 의상으로 남녀 구분이 없는 게 특징이다. 이 트렌드는 특히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순환이 가능한 SPA브랜드의 강세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스티브 잡스의 검정색 티와 데님·운동화를 매치한 스타일과 버락 오바마의 수수한 패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단 스타일링법

여성의 경우 간단한 화이트 티셔츠에 청바지를 이용하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연출에 도움이 된다. 차분한 그레이 색상의 장식이 없는 아우터를 걸치면 도시적인 매력을 더할 수 있다.

'스포티즘' 이어 올 가을 패션 키워드로 급부상

액세서리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택하고 슬립온이나 운동화를 신는 것이 포인트다.

남성의 경우는 누구나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데님이나 치노 팬츠를 이용하면 손쉽게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간결하고 라인을 살려주는 옥스퍼드 셔츠는 놈코어 룩에 강세를 보일 아이템 중 하나다.

구두보다는 화려하지 않은 스니커즈가 잘 어울리며 이와 함께 손목 시계나 검은 안경테로 마무리하면 절제된 스타일을 뽐낼 수 있다.

◆과하지 않은 액세서리가 포인트

놈코어 패션의 핵심은 무심한 듯 세련미를 강조하는 것에 있다. 이 때문에 심심하지 않은 액세서리 연출이 중요한 포인트다. 과하지 않은 취심과 독특한 색감의 로트백은 자연스러운 매력을 강조해 놈코어 룩에 제격인 아이템이다.

손목 시계의 경우는 가죽 스트랩 시계를 활용해보자. 액세서리 수를 줄이고 가죽 손목시계 하나만 착용해도 특유의 은은한 멋을 풍겨 눈길을 끌 수 있다.

스니커즈 선별은 니트나 스웨터를 매치한 바지와 잘 어울려 화려하진 않지만 차분한 매력이 배가된다. 컬러 워싱이 적용된 제품이나 신발끈이 없는 것과 면바지를 매치하면 캐주얼뿐만 아니라 수트 차림의 비즈니스 캐주얼까지 두루 소화할 수 있다.

/김하늘기자 kimd0204@metroseoul.co.kr

휴가 후 '요요현상' 잡아라

운동·식이요법으로 체중조절 하도록

여름휴가가 막바지에 접어든 요즘 바캉스 후유증이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바로 무리한 다이어트 후에 나타나는 '요요현상'이다. 직장인 최연주(27) 씨는 "비키니 패션을 위해 갑자기 식사량을 줄여 살을 뺐다니 며칠 방심한 사이 금세 살이 붙었다"며 울상을 지었다.

한 다이어트 전문가는 "휴가를 다녀온 후 느슨해진 마음에 추석 연휴까지 겹치는 초가을은 체중 조절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시기"라며 "배탈지기처럼 굶거나 운동하기 보다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규칙적인 운동이 버거운 여성들 사이에서 신개념 운동 '하이폭시'가 인기다.

하이폭시는 세계 최초로 고압력과 저압력을 교차시킨 기술을 운동에 접목, 복부·엉덩이·허벅지 부위의 지방을 연소시키고 피부 탄력을 개선한다.

이 운동은 진공과 압력 운동이 번갈아 적용되는 밀폐된 기구에 들어가 30분간 가벼운 사이클링 하는 방식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중저강도의 운동이라 힘든 걸 싫어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과학적인 원리로 일반 유산소 운동에 비해 3배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살을 뺄 때 가장 힘든 게 '먹는 즐거움'을 참는 것이다.

허벌라이프의 'Formula 1 뉴트리셔널 쉐이크 믹스'는 배고픔 없이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게 돕는다.

단백질을 비롯해 16가지 비타민, 식이섬유 등을 함유한 믹스는 각종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한다. 1회 섭취량이 90kcal가 인데 하루 한 두끼 식사 대용으로 섭취 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바닐라·초코렛·스트로베리·쿠키앤크림 등 네 가지 맛으로 구성돼 먹는 즐거움까지 충족시켜준다.

/박지원기자 p.we@

해외여행 중 소매치기를 당했다면?

관광공사 '안전하고 유익한 여행 팁'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센터는 26일 해외여행 중 사건 사고 대처방법을 공개했다.

소매치기 당한 경우에는 큰 소리로 외쳐 주변의 도움을 청한다. 피해가 있을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도난신고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사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귀국 후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행 경비를 분실했을 때는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해 미화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공항에서 짐을 분실했을 경우 수하물 확인표를 갖고 공항의 수하물 분실 신고소 또는 최종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 사고 신고서를 작성한다. 당일에 찾지 못하면 꼭 해당 항공사에 수하물 지연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재외공관 혹은 영사콜센터(국가별 국제전화번호+800 2100 0404)에 연락해 도움을 청한다. 만약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챙기고 귀국 후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한다.

상해가 발생해 병원을 이용할 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한국관광공사의 '저스트 터치 잇(Just Touch It)'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아픈 부위, 증상 설명, 통증 종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픽토그램을 활용해 소통할 수 있으며 영어·일본어·중국어로도 제공돼 편리하다.

/박지원기자

다이어트 '변비'…도움 주는 음료는?

식이섬유 음료·탄산수·발효유 등 좋아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다이어트에 도전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상생활로 복귀했지만 갑작스런 다이어트의 후유증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대표적인 다이어트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변비다. 20~3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변비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20대 여성은 남성보다 4.6배나 많았으며 30대는 3.8배에 달했다. 남성보다 여성 변비 환자가 많은 것은 여성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자주 거르는 등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변비'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보충, 식이섬유, 미네랄, 유산균 등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현대약품의 '미에로화이바'는 국내 최초 식이섬유 음료다.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한 여름 시즌에 적합한 '미에로화이바 후레쉬'는 식이섬유 7g을 음료 한 병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천연 암반수의 풍부한 미네랄과 탄산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디아망'을 판매하고 있다. 기능성 차 전문업체 티젠은 체내에 쌓인 나쁜 성분을 배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변비를 예방하는 '우엉차 콘 티백' 제품으로 출시했다.

/황재용기자 hsoul@

감독
스티븐 소더버그
더닉 클라이브 오웬 주연
THE KNICK
매주 금요일 밤 12시, 본방송
SCREEN
tcast
FX

새로 나온 책

인문

교사의 배움

서근원 외 / 한국배움의공동체연구회 / 에듀니티

2010년 45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시작된 '배움의 공동체' 세미나를 통해 5년 동안 학교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담았다. ▲동료 교사간 연대책이 된다는 공공심의 철학 ▲교사와 학생 하나하나가 존중 받는 민주주의의 철학 ▲가르치고 배우는 수준을 최고로 유지하려면 다른 이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탁월성의 철학 세 가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소외 없는 배움의 의미를 제시한다.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강신주 외 / 메디치

이 책의 인문학자 8명은 말한다. "현실은 절망적이다. 하지만 당신 책임은 아니다. 자기계발은 현실을 바꿀 수 없었고 힐링은 사기였다. 치료 대상은 당신이 아니라 사회다." 이 책은 고전 탐구나 정신 수양의 인문학 책이 아니다. 성난 인문학이라고 표현한 저자들은 사회를 바꾸는 것이 인문학의 본질이라 말한다. 1, 2부 모두 인간의 욕망과 불안을 담았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찰한다.

소설

굿바이, 콜럼버스

필립 로스 / 문학동네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 필립 로스의 데뷔작이다. 유대인계 미국인 남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유대주의와 유대계 미국인에 대한 풍자적인 이야기를 다룬 단편집으로 출간 이듬해 전미도서상을 수상했다. 전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인간 삶의 보편적인 고민과 아이러니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위트 있게 그려내고 있다. 필립 로스의 후기 작품보다 풋풋하고 경쾌하면서도 이후 다른 작품들을 통해 인물과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재미도 있다.

건강

식용유가 뇌를 죽인다

야마시타 데쓰오(?) / 북퀘스트

저자는 점차 증가하는 뇌 질병의 원인으로 식물성 기름을 지목하며 과학적 근거와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등 식물성 기름에는 동맥경화, 고혈압, 비만 등을 예방하는 필수지방산 리놀레산이 들어 있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기름을 추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리놀레산에서 생겨난 '하이드록시노네날'이 뇌세포를 파괴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놀레산 계열의 식물성 기름을 대신할 기름의 선택법과 사용법도 제시한다.

역사·문학

당신들의 일본

유순하 / 문이당

"모름지기 글쟁이란 현 사회의 관성을 실천하는 직업"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그간 책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을 날석해 왔다. 이 책은 작가의 체험적 입장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현상 30가지를 골라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비교 분석했다. 저자는 이런 현상의 극복이 없는 한 일본을 넘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여섯 번째 대멸종은 시작됐다"

생태계 다양성 파괴하는 인류 지적

인류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담론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아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기후가 나빠지는 등 이미 여기저기에서 이상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멸종'이라는 강력한 어휘를 사용하며 그 원인이 인간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섯 번째 대멸종

엘리자베스 콜버트 / 처음북스

지난 50억년간 이미 지구는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경험했고 그 때마다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낮아졌다. 가장 최근의 대멸종은 6600만년 전 백악기에 발생했으며 소행성 충돌로 17%의 과와 50%의 속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공룡을 볼 수 없게 됐다. 과학자들은 '인류세'라고 불리는 현재 인간으로 인해 다섯 번째 대멸종 이래로 가장 파괴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사실 멸종은 환경이 변하거나 지역을 대체하는 새로운 종이 유입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수준의 멸종이 아니다.

생물이 자연적으로 멸종하는 정도를 '배경멸종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저자는 현재 지구가 이 배경멸종률을 넘어서는 수준의 대멸종에 근접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고대 바다를 연구하는 지질학자, 안데스 산맥에서 상승 중인 수목한계선을 쫓아 오르는 식물학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로 직접 뛰어드는 해양 생물학자 등 전문 연구원들이 현장에서 전하는 증언은 무척 생생하다.

인간은 비누에 전 세계를 이동하며 면역하니 진화에 이를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세균을 다르고 있다. 또 편역에 의해 지역을 갈라놓으면서 생물들의 삶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우리가 이렇게 사소하게, 조금씩 벌이는 일들은 엄청난 속도로 대멸종으로 이끌고 있다.

이미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파나마 황금 개구리, 큰 바다쇠오리, 수마트라 코뿔소 등 우리 바로 앞에서 사라져가는 생물의 이야기는 인류가 짊어지고 가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장혁진 기자 · junel404@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철마는 달리고 싶다

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계까지 고려됐던 경원선 전철화 사업이 드디어 9월 말 착공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을 가로지르는 3대 철도망인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은 군사분계선에 막혀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광이 연결해 유라시아의 시도운 실크로드 될 한다는 구상은 우선 남북관계가 호전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다. 언젠가 우리 철마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달리는 날이 올까. - '서준영의 러시아 몽골 기차 여행'(서준영/밀진사) 중 -

/장혁진 기자

'붉은 반점' 자반증을 잡아라

화제의 책

주치의의 자반증 노트

유승선 / 한국경제매거진

상세한 한방 치료법과 식이요법 레시피 공개

자반증은 제2의 아토피로 불릴 정도로 최근 주목받는 피부병 가운데 하나다.

붉은 반점 처럼 생긴 자반은 적혈구의 유출이 진피층으로 발생해 피부가 붉은색이나 보라색으로 변색된 상태를 말한다. 크기에 따라서 직경이 3㎜ 이상이면 자반, 3㎜ 미만을 점상 출혈이라고 부른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자반증은 열(血熱)로 인한 우리 몸의 불균형 상태에서 생긴다. 따라서 혈액에 열이 생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준다면 자반증을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들이 자반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자반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칫 잘못된 지식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책은 자반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자반증의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자반증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짚어간다.

책은 특히 침을 사용한 치료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예를 들면 알레르기성 자반증에는 사관과 족삼리 혈을 잡아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식이다.

아울러 저자는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자반증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실제 환자들의 11가지 사례를 들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책의 마지막에는 쿠킹 클래스를 실어 자반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요리를 소개한다.

/권혁실 기자

SNS세대, 책 두께도 바꿨다

인터파크도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소설 중 250쪽 이하로 출간된 신간 종수를 조사한 결과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2010년과 비교하면 올해에는 약 38% 가량 출간 종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3년 출판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1년새 신간이 7.9% 감소했다고 한 점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최근 출간된 배명훈의 '가마틀 스타일'은 124쪽이고 이종산의 '게으른 삶'과 정지향의 '초록 가죽소파' 최류가 각각 152쪽, 160쪽이다. 이 외에도 성이현, 이와수, 은희경, 백지윤 등 연기작가의 신간 역시 가벼운 두께로 출간됐다.

신간 소설뿐만 아니라 문학동네, 민음사, 창비 등 주요 출판사에서 고전문학 및 개정판을 가벼워진 디자인으로 선보이고 있다.

/장혁진 기자

metro entertainment

'썸' 만든 그녀 진짜 매력 지금부터

아이, 아이 러브 유 로 가수 데뷔 에스나

" UCLA 재즈보컬 전공 후 한국행 김도훈 만나 대박 작곡가 등극 글로벌 여성 싱어송라이터 꿈 "

씨스타의 소유와 정기고가 부른 '썸'은 올해 상반기 음원차트 최고 인기곡으로 조사됐다. '썸'은 가요계는 물론 대중문화계에 인기 트렌드를 형성하는데 일조한 곡이다. 그런데 이 노래의 공동 작사·작곡가가 원곡 가수보다 뛰어난 가창력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에스나(27)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첫 싱글 '아이, 아이 러브 유'를 발표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UCLA에서 재즈보컬을 전공한 그는 가수의 꿈을 위해 한국을 찾았고 뜻하지 않게 작곡가로 먼저 스타 반열에 올랐다.

동해와 공동 작사·작곡한 에즈원의 '온리 유'(2012)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 휘성과 거미가 10년 만에 함께 부른 '스페셜 러브'를 공동 작곡해 차트 1위를 맛봤다. 올해는 대박이 난 '썸' 외에도 아마무와 범키가 부른 '행복하지마' 작사·작곡, 아이유와 케이윌이 부른 '썸남썸녀' 작곡, 매드클라운과 효린이 부른 '견딜만해' 작사·작곡, 포미닛의 '오늘 뭐해' 작사·작곡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2011년 11월 25일 한국에 왔다. 가수의 꿈을 안고 무작정 친구 집에 얹혀 살며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미국에 있을 때 우연히 클라이 두더스카이의 브라이언 오빠를 알게 됐고 브라이언 오빠를 통해 지나를 만났다. 지나가 지금 소속사 WA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작곡가 김도훈을 소개해 줬다.

–특유성이 강한 성격인가 보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방학마다 한국어를 배우라고 한국 이모집에 보내셔서 낯설지는 않았다.

–아이, 아이 러브 유 뮤직비디오 인트로에 산이, 버벌진트, 정기고, 존박, 윤도현, 매드클라운 거미, 조권, 작곡가 김형석 등이 출연했다. 대단한 인맥이다

한 번 인연을 맺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사람을 알게 됐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는 가수로 뜨기 위해 인맥 관리를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 크게 신경쓰는 성격이 아니다.

–언제부터 음악을 했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네 살 때부터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불렀던 것 같다. 예술 전문 중·고교에서 연기와 춤, 재즈 음악 등을 배웠다. 대학 시절에는 학교 대표 댄스팀 활동을 하며 힙합이나 재즈 댄스를 췄다. 졸업하고 한국에 오기 전에는 초·중·고교생들에게 음악과 춤을 가르치는 강사 일을 했다. 피아노는 10세 때부터 쳤다. 연습생 시절을 따로 보내진 않았지만 인생 자체가 연습생 과정이었다.

–한국에서 소속사와 계약한 후 가수가 아닌 작곡가로 먼저 데뷔한 이유는

지난해 9월 김도훈 대표님을 만났다. 당시 50곡 정도를 작업해 뒀다. 감사하게도 김도훈 작곡가가 능력을 높이 평가해 줬다. 2년 전 만들어둔 곡인 '행복하지마'를 매마무의 데뷔곡으로 채택해주셨다.

–에스나(ESNA)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었나

한국 이름이 윤빛나라다. 미국 이름이 에스더 나라 윤이다. 두 이름을 합쳐서 에스나라고 지었다.

–'썸'이 대박이 나 저작권 수입도 상당할 것 같다

이제 막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작사가가 4명, 작곡가가 3명이나 되는 곡이다. 그 중에 내 이름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기쁘다. 그저 모든 게 감사할 뿐이다.

–남의 노래를 만들다가 자신의 노래를 부르게 돼 '아이, 아이 러브 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겠다

작사·작곡은 물론 피아노 연주, 코러스, 프로듀싱까지 직접 했다. 한국어 버전 외에 영어 버전도 함께 만들었다.

–주목받는 인기 작곡가의 이미지가 강한데 대단한 가창력을 지녔다

'아이, 아이 러브 유'는 R&B 발라드다.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편곡을 단순하게 했다. 에스나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제 음색과 음악 스타일을 편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국내에 대중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드물다. 어떤 길을 가고 싶나

세계적인 팝 가수인 브루노 마스나 레이디 가가도 작곡가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식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 곡도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발표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원승미

4인조 카라 컴백 일주일 '성공작'

귀여움·섹시함 교차 밝은 에너지 발산… 일본 공연계도 주목

니콜·강지영의 탈퇴 후 새 멤버 허영지를 영입한 카라(사진)가 컴백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4인 체제 카라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카라는 체질 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허영지의 합류로 화려하게 3막을 시작한 카라에 대한 관심은 국내를 넘어 일본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다.

◆ 카라 화려한 3막 스타트

2007년 데뷔한 카라의 원년 멤버는 한승연·박규리·니콜·김성희였다. 그러나 1집 활동이 끝나고 김성희가 학업 등의 이유로 그룹을 탈퇴했다. 이후 힘든 시기를 보낸 카라는 새로운 멤버 구하라·강지영의 영입 후 '프리티걸' '허니' '미스터' '루팡' 등 잇달아 히트곡을 만들며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니콜·강지영의 탈퇴로 또 다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 때문에 카라는 한승연·박규리·구하라 등 잔류 3인방만으로 팀을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멤버를 영입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오랜 고심끝에 새 멤버 허영지를 합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의 한수가 됐다. 허영지의 합류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것이다.

사실 카라는 데뷔 동기인 소녀시대·원더걸스와 생존경쟁을 펼치면서 섹시함보다 깜찍한 안무와 귀여운 그룹으로 대중에게 각인됐다. 인형 같은 외모와 가날픈 각선미가 한몫했다.

그러나 허영지는 166cm의 늘씬한 키와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갖추고 있다. 덕분에 그룹 평균 연령은 낮아진 반면 귀여움과 섹시함이 교차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허영지의 합류로 기존 멤버들까지 신인으로 돌아갔다. 데뷔 후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카라는 과거 무대와 달리 4인 체제로 안무를 바꿔야 한다. 결국 막내 허영지와 동선을 맞추기 위해 모든 멤버들이 신인의 마음으로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4인 체제로 바뀌면서 멤버 모두 새롭게 바뀐 파트와 동선, 안무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3인 체제로 활동했을 때보다 에너지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설명했다.

◆ 한류 붐기, 일본 공연계 주목

일본 가요계도 카라의 컴백은 빈가운 분위기다. 최근 아이돌 그룹들은 일본이 아닌 태국과 중국 등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있다. 이는 한동안 효자 노릇을 해오던 일본 시장의 냉각으로 인한 한류 침체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대표적인 한류 걸그룹으로 활동한 카라의 컴백은 잃어버린 공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카라는 27일 일본에서 '데이 앤 나이트' 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 시작은 콘서트다. 카라는 10월 24일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5개도시 (나고야·가나자와·요코하마·오사카)에서 아레나급 콘서트를 개최한다.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상 3인 체제로 콘서트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했다. 그러나 허영지가 합류하면서 현지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졌고, 활력을 불어넣은 건 사실"이라며 "다시금 카라의 인기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순호기자 yss@metroseoul.co.kr

씨스타 '스위트 앤 소어' 공개

'터치 마이 바디' 흥행 이어가나

씨스타(사진)가 스페셜 앨범으로 여름 가요계 완전 정복에 나선다.

'터치 마이 바디'로 초여름 가요계를 강타한 씨스타는 26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스페셜 앨범 '스위트 앤 소어'를 공개했다. 전작 '터치 마이 바디' 활동을 끝낸 지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내놓는 스페셜 앨범이다.

이번 앨범에는 하우스룰즈, 글렌체크, 레노, DJ 스펜스 등 국내 최고의 일렉트로닉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힙한 멜로디에 변화무쌍한 분위기를 담아냈다. 전작들과 차별화된 씨스타의 매력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틀곡 '아이 스웨어'는 무더위를 날려버릴 듯한 여름의 시원스런 흥분과 판타지를 머금고 있다. 또 다른 신곡 '홀드 온 타이트'는 앙칼지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을 지닌 곡이다.

'아이 스웨어' 뮤직비디오는 주용필·타이거JK, 정기고의 작업한 플랜스가 맡아 연출했다. 사이판 해변가의 석양을 배경으로 하와이안 춤을 추는 멤버들, 싱그러운 꽃잎이 석양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오묘한 조화를 이뤄 감각적인 영상으로 완성됐다.

씨스타는 스페셜앨범 '스위트 앤 소어'를 발매하고 본격적인 방송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념윤기자

클래지콰이 데뷔 10주년 기념 파티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는 그룹 클래지콰이(사진)가 오는 29일 기념 파티 '10th 클래지콰이 데이'를 개최한다.

클래지콰이 측은 "오는 29일 서울 예스24 무브홀에서 1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를 펼고 팬과 자축의 시간을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파티에서 멤버들은 기존 발표해온 각종 노래를 다양한 리믹스와 사운드로 새롭게 들려줄 예정이다. 또 밴드 어반자카파, 프롬디에어포트 등도 10주년 축하 게스트로 가세한다.

클래지콰이는 "10년동안 다져온 리믹스와 사운드를 바탕으로 그 어느 순간보다도 빛나는 순간들을 모았다"고 공연 준비 소감을 밝혔다.

클래지콰이는 2004년 DJ 클래지를 주축으로 알렉스, 호란 등이 함께 용져 음반을 내면서 데뷔했다. /김성민기자

갓세븐 인기 이정도였어?

태국 첫 프로모션 가는 곳마다 수천 명 몰려

JYP엔터테인먼트 신예 그룹인 갓 세븐(사진 위)이 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확인했다.

올해 데뷔 후 처음으로 태국을 방문한 갓세븐은 22~24일 사흘간 공항은 물론 공연장, 호텔, 방송국, 행사장 등에 매번 수천 명의 팬들을 불러모았다. 입국 당일인 22일에는 트위터의 월드 트렌드에 '#웰컴 갓세븐 투 타일랜드(#Welcome GOT7 to Thailand)'가 올랐다. 방콕 공항에는 1600여 명의 팬이 모였다.

다음날 열린 '토푸 뮤직 페스티벌'에서 갓세븐은 1시간 동안 공연했고, 7000여명의 관객이 운집했다. 24일에는 태국 국민 MC 서라윳이 진행하는 현지 인기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어 시암파라곤에서 진행된 앨범 프로모션에는 팬민족지 경쟁과 함께 4600여 명이 운집했다.

갓세븐은 30일 홍콩 아시아 월드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소속사 패밀리 콘서트인 '2014 JYP네이션-원 마인드'에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sunn@

될 것도 안 되는!
네 남자의
사나운 로맨스
tvN 금토드라마
아홉수 소년
9 19 29 39
매주 금,토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 8월 29일 첫방송
김영광 | 경수진 | 오정세 | 유다인 | 육성재
김형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실종된 '여성'

대한민국 예능을 이끄는 국민 MC 세 명을 꼽으면 유재석·신동엽·강호동 등 남성 방송인이 주로 거론된다. 여성 방송인도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남성 메인 MC를 돕는 주변인 역할에 머무른다. 프로그램의 내용 역시 남성 위주다. '썸' 열풍을 몰고온 JTBC '마녀사냥'은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가 프로그램 콘셉트다. MBC는 '아빠! 어디가?'로 육아 예능 유행을 주도했다. KBS는 제목부터 '나는 남자다'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다양한 시청층을 공략하는 케이블 채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 전문 채널 스토리온은 '렛미인'과 '맘토닥톡' 등 여성 MC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나 각각 성형 메이크오버 쇼와 엄마들의 육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여성의 다양성을 담아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렛미인'은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에게 성형과 정신과 치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성형과 시술을 감행해 천편일률적인 미적 기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핵심 출연진 남성 일색 속 장점 못 살려… 콩트에선 비하 소재

이 같은 상황 속에서 SBS는 이효리·문소리·홍진경 등 여성 스타를 메인 MC로 한 토크쇼 '매직아이'(사진 왼쪽)를 선보였다. '매직아이'는 한 주 동안 일어난 각종 사회적 이슈를 토크 주제로 선정해 세 명의 MC가 게스트와 함께 각자의 생각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첫 방송 당시 '꽤 좋아하는 언니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워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여성 진행자의 장점은 살리지 못한 채 이슈 진단 토크쇼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성 스타들의 리얼 입대 프로젝트로 큰 인기를 모은 '진짜 사나이'는 최근 여군 특집편(오른쪽)을 방송했다. 지난 24일 방송에선 배우 김소연·홍은희·라미란, 걸스데이 혜리, 가수 지나, 개그우먼 맹승지, 쇼트트랙 선수 박승희 등 7명의 여자 스타들이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여자 스타들은 관등성명·군가·제식 등 여성들에겐 낯선 군대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줘 웃음을 자아냈다. 출연진이 회가 거듭될수록 멋진 여군으로 거듭난다면 이번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편은 성공적이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들'이라는 사회 인식에 일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남성 일색인 예능가에 여성을 앞세운 프로그램들이 아쉬운 이유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유연한 여성의 장점을 살리는 대신 감정에 휘둘리거나 연약한 면만을 부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KBS2 '인간의 조건'이 최근 진행한 여성 패널 특집 '피부&두피 점령하기' 편에 출연했던 개그우먼 김영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박은지에게 트집을 잡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영희가 방송에서 보여준 태도는 전형적인 '여자의 적은 여자'였다.

콩트 프로그램 사정도 마찬가지다. 여성 외모 비하를 소재로 삼은 코너는 수 없이 많고 개그우먼은 못생기거나 뚱뚱하고 예쁘면 멍청해야만 뜬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코믹 뮤지컬 '드림걸즈 시즌3'의 연출자 오미영은 "그런 풍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본적으로 희극인이라는 직업이 대중보다 낮은 위치에서 망가지거나 단점을 드러내서 웃음을 유발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외모 비하에 치우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개그우먼들이 얼굴이나 외모를 내세워서 웃기려고 하는 것보다 내면의 콤플렉스를 재치로 끌어내 관객에게 웃음을 주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정지원기자

박성웅 통신 이어 게임 모델로

박성웅(사진)이 스마트폰 게임 모델로 발탁됐다.

박성웅은 NHN엔터테인먼트의 스마트폰 게임 '블랑도' 모델로 활동한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박성웅이 '블랑도' 광고를 통해 냉철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완벽 변신했다"고 전했다.

'블랑도'는 10월 출시 예정으로 이미 일본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와 함께 매출 40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광고 관계자는 "현재 박성웅이 통신사 광고뿐만 아니라 게임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 업계에서 박성웅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성웅은 현재 영화 '살인의뢰' 촬영 중이며 최근 영화 '오피스'를 차기작으로 확정 짓고 촬영 준비에 한창이다. /유순호기자 suno@

위너 '컬러링' 어쿠스틱 버전 공개

화제의 신예 보이그룹 위너(사진)가 '컬러링'의 어쿠스틱 버전을 공개했다.

'컬러링'은 데뷔 앨범 '2014 S/S'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로 위너는 26일 원곡과 다른 느낌으로 편곡해 영상과 함께 선보였다. 이번 이벤트는 음악 사이트 멜론이 진행하는 '멜론 프라임'의 일환이다.

위너는 다양한 매력의 영상을 멜론과 K팝 전용 서비스 공간인 원더케이(1theK)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29일에는 각 멤버들의 매력을 담은 '퍼포먼스' 영상을 공개하며 다음달 2일에는 프로필(인터뷰) 편에서는 위너의 매력을 집중 해부한다. /유순호기자

트로트여왕의 음악실험은 계속

주현미 30주년 기념 앨범서 다양한 시도 — 내달 전국투어

'트로트 여왕' 주현미가 데뷔 30주년을 맞아 젊은 뮤지션과 대대적인 협업으로 새 앨범을 제작한다.

주현미가 27일 발표하는 30주년 기념 앨범에는 스타 작곡가 윤일상, 정엽과 에코브릿지로 이뤄진 허니듀오, 밴드 국카스텐, 인피니트 효린의 곡을 만든 장원규 등의 뮤지션이 참여했다.

주현미는 26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0주년 기념 앨범 발표와 공연 개최 기자간담회에서 "언제부턴가 트로트 장르를 고집하면서 한계를 느꼈다. 한쪽만 고집하다보면 젊은 가수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후배들과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원규가 쓴 타이틀곡 '최고의 사랑'은 지난 30년간 자신을 사랑해준 대중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노래다.

앨범을 제작한 예스에이뮤직 측은 "트로트가 아닌 대중가요의 느낌이 짙은 곡들이 수록됐다. 주현미씨가 긴 연습과 녹음 일정을 소화하며 새로운 음악적 변화에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주현미가 26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지난 30년간 17장의 정규앨범을 포함해 40여 장의 앨범을 발표한 주현미는 그동안 조PD, 소녀시대의 서현 등과 작업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

주현미는 다음달 13~14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후 수원, 성남, 대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는 30년 음악 친구인 이선희와 국카스텐의 보컬 하현우가 게스트로 참여한다.

주현미는 "신인 시절 이미자 선배님의 30주년 기념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때는 30년 세월이 정말 까마득했는데 내가 벌써 그 자리에 와있다. 담담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그는 "패티김, 이미자 선배님처럼 오랜 시간 대중과 서민의 정서를 노래하는 가수로 남고 싶다"며 "이선희씨가 30주년을 맞아 어딘가에서 노래하는 이선희로 남겠다고 했는데 저도 노래하는 주현미로 남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유순호기자

영화 '루시'의 스칼렛 요한슨 /UPI 코리아 제공

4색 여배우 9월 스크린 유혹

신세경·이하늬·송혜교·스칼렛 요한슨 색다른 매력 대결

가을을 앞둔 극장가가 여배우들의 매력 대결로 물들 전망이다. 어느 해보다 빠른 추석 연휴에 맞춰 여배우들의 활약을 내세운 대작들이 다음달 3일 동시에 극장가를 찾는다. 기존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캐릭터로 돌아온 여배우들의 변신을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신세경과 이하늬는 영화 '타짜-신의 손'에서 라이벌로 호흡을 맞췄다. 신세경은 극중 최승현이 연기한 주인공 대길의 첫사랑 미나 역을 맡았다. 청순한 미모에 당돌한 성격으로 대길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나는 우연한 사건으로 타짜 세계에 들어와 의외의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신세경은 청순함과 섹시함을 겸비한 캐릭터로 매력을 발산했다.

이하늬는 타짜 세계에 입문한 대길에게 접근하는 우사장을 연기했다. 고혹적인 섹시함 속에 의외의 모습을 숨겨둔, 속을 쉽게 알 수 없는 인물이자 영화 스토리의 반전을

이하늬

담당하는 핵심적인 캐릭터다. 이하늬는 섹시함과 귀여움을 넘나드는 팔색조 매력을 선보였다. 최승현을 사이에 두고 신세경과 펼치는 묘한 신경전도 영화의 재미다.

송혜교는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생애 첫 모성애 연기를 펼쳤다. 한때 아이돌 가수를 꿈꿨으나 17세 나이에 아이를 낳으면서 예상치 못한 인생을 살게 된 미라 역을 맡았다. 남들보다 빨리 늙는 선천성 조로증을 겪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당찬 엄마다. 스타의 이미지를 벗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온 송혜교의 변신이 인상적이다. 강동원과 함께 고등학생으로 변신한 모습도 영화의 작은 볼거리다.

'어벤져스'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에서 슈퍼히어로 블랙 위도우로 강렬한 존재감을 남긴 스칼렛 요한슨은 SF 액션영화 '루시'로 돌아온다. 주인공 루시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으나 우연한 사건으로 뇌용량의 100%를 사용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인물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루시의 모습이 스칼렛 요한슨의 강렬한 연기와 함께 화려한 영상미로 담겼다. 남성들을 단번에 제압하는 힘과 간지러운 카체이싱 순간에도 긴장을 잃지 않는 모습 등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가 인상적이다.

/장병호기자 solu***@metroseoul.co.kr

김강우·주지훈·임지연 뭉쳤다

민규동 감독 첫 사극 영화 '간신' 주연

민규동 감독의 신작 '간신'이 주지훈·김강우·임지연·천호진·이유영 등의 캐스팅을 확정했다.

'간신'은 조선 연산군 시대를 배경으로 임금 앞에서는 충신인 듯 하지만 정사를 그르치는 주범인 간신과 왕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 영화다.

주지훈이 간신 숭재를, 김강우가 연산군 융을 연기한다. 특히 김강우는 첫 사극 도전으로 유례없는 연기 변신을 선보인다. '인간중독'으로 주목 받은 임지연은 복잡에 싸인 여주인공 단희 역을 맡았다.

천호진은 숭재의 아버지이자 숭재 못지않은 간신인 사홍 역으로 존재감을 빛낼 예정이다. 영화 '봄'으로 밀라노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신예 이유영은 단희의 라이벌 설중매 역으로 섹시하면서도 당찬 모습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송영창·장광·정인기·차주남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한다. '간신'은 다음달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정우성 데뷔 이후 첫 치정 멜로 도전

'마담 뺑덕'으로 옴므파탈 변신

배우 정우성이 영화 '마담 뺑덕'(감독 임필성)으로 데뷔 이후 첫 치정 멜로에 도전한다.

'마담 뺑덕'은 고전 '심청전'의 설정을 뒤집어 두 남녀의 지독한 사랑과 집착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정우성은 사랑을 저버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빠지는 주인공 학규를 연기했다.

극중 학규는 명망한 정장 차림이 익숙한 대학교수다. 추문에 휘말려 좌천된 소도시에서 스무 살 처녀 덕이를 만나 뜨거운 사랑에 빠지지만, 이내 자기은 배신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8년 뒤 덕이를 다시 만나지만 눈이 먼 나머지 그녀의 정체를 모른 채 그녀에게 의존하며 위험한 운명 속으로 빠져든다. 옴므파탈 캐릭터로 욕망에 얽매인 남자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우성은 "심학규를 통해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도전의식이 생겼다"고 작품 선택 이유를 밝혔다. 또한 "덕이와의 사랑 말 뿐이 와 보여주는 부녀관계의 감정 등 모두가 배우로서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이었다. 어떻게 하면 더 심학규답게, 그리고 더 정우성답게 표현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고 전했다.

'마담 뺑덕'은 오는 10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영화 '자유의 언덕' /영화제작전원사 제공

'자유의 언덕' CGV 9월 라이브톡

홍상수 감독 신작 국내 최초 공개

홍상수 감독의 16번째 장편영화 '자유의 언덕'이 CGV 무비꼴라쥬의 9월 라이브톡 상영작으로 선정됐다.

CGV 무비꼴라쥬의 라이브톡은 영화 관람 후 이동진 영화 평론가의 장면 해설을 전국 주요 무비꼴라쥬 상영관에서 생중계로 만나는 행사다. 지난해 4월 론칭한 이후 평균 86% 이상의 높은 객석율을 기록하며 CGV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자유의 언덕'은 이번 라이브톡 행사를 통해 국내 관객들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일본인 모리가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온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의 여정을 다룬 작품이다. 일본 배우 카세 료와 문소리, 서영화 등이 출연한다. 베니스국제영화제, 토론토국제영화제, 뉴욕영화제에 초청됐다.

9월 라이브톡 행사는 다음달 3일 오후 7시 CGV 압구정 무비꼴라쥬에서 열리는 시네마톡 행사를 CGV 강변·구로·목동·센텀·오리·동수원·소풍·대전·대구·광주터미널·서면에서 동시 생중계한다. 예매는 27일부터 가능하다. /장병호기자

추신수 팔꿈치 수술 시즌 끝

텍사스 첫 해 123경기 타율 0.242 13홈런

추신수(사진)의 겨울이 멈췄다.

추추트레인 추신수(32)가 대형 계약 후 큰 기대 속에 시작했던 텍사스 레인저스에서의 첫 번째 시즌을 결국 팔꿈치 부상으로 일찍 마감했다.

텍사스 구단은 26일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리는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방문 경기를 앞두고 추신수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텍사스 구단은 "추신수가 왼쪽 팔꿈치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관절경으로 잘라내는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술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수술은 팀의 주치의인 키스 마이스터 박사가 집도한다.

수술 후 재활을 해야 하는 처지라 추신수는 이날 포함 남은 32경기를 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는 전날까지 올 시즌 12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2, 홈런 13개, 타점 40개를 기록했다.

스프링캠프 때 왼쪽 팔꿈치 통증 탓에 제대로 연습을 하지 못한 추신수는 정규리그 초반인 4월 2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왼쪽 발목을 다쳐 이중고에 시달렸다.

그러나 팀의 주전들의 연쇄 부상으로 타순표를 짜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자 추신수는 통증을 참고 뛰어 왔다.

전날 감기 증세로 올해 6번째로 한 경기를 통째로 쉰 추신수는 이날 정밀 검진을 받고자 시애틀 원정에 동행하지 않았다.

추신수 대신 마이클 초이스가 빅리그로 올라와 그의 빈자리를 메운다.

이제 추신수는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충분한 휴식과 재활을 거친 뒤 2015시즌을 대비할 전망이다. 완벽한 몸 상태로 지난해 신시내티에서의 영광을 재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병호기자 ysw@metroseoul.co.kr

김기태는 기회를 다시 잡을까?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4위를 쉬대롭게 지키던 롯데가 LG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특히 김시진 감독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4강에 들지 못하면 다른 감독들도 비슷한 처지에 빠진다. 승부와 세계에서 성적은 곧 생명이다.

벌써부터 차기 감독 후보들이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다. 김성근 고양 원더스 감독과 함께 또 한 명의 주목 받는 이가 있다. 지난 4월 LG 지휘봉을 놓은 김기태 전 감독이다. 미국에서 가족들과 지내다 얼마 전 귀국했다. 두드러진 움직임 없이 잠행을 하고 있다.

김기태 감독이 지휘봉을 스스로 놓자 말들이 많았다. 자식들을 버려두고 집 나간 아버지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는 지금껏 지휘봉을 놓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선수들이 감독을 살리려고 야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을 했다.

시간은 지났고 LG는 4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바통을 이어받은 양상문 감독은 탁월한 따뜻한 은용을 통해 수렁에 빠진 팀을 구했다. 그렇다고 김기태의 리더십이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 11년 만에 LG의 가을행을 이끈 능력은 오롯하다.

김기태의 장점은 탁월한 소통 능력이다. 의리와 배려심을 갖춘 형님 리더십으로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선수들이 감독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재주를 지녔다. 작년 시즌 LG 선수들을 결집시켜 플레이오프 직행을 성사시킨 원동력이었다.

아마도 시즌이 끝나면 몇몇 팀의 차기 후보에는 오를 것이다. LG에서 김기태의 꿈은 미완성으로 끝났다. 수 개월 동안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의지를 키웠다. 과연 김기태는 이루지 못한 꿈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까?

/OSEN 야구전문기자

26일 잉글랜드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맨시티의 골키퍼 조 하트(왼쪽 두 번째)가 리버풀의 코너킥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AP 뉴시스

맨시티, '라이벌' 리버풀에 3-1승

발로텔리 프리미어리그 복귀

맨체스터시티(이하 맨시티)가 리버풀을 꺾고 2연승을 달렸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지난 시즌 1~2위 팀인 맨시티와 리버풀은 26일 잉글랜드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맞붙었다. 맨시티는 스테반 요베티치가 2골을 넣는 활약에 힘입어 3-1로 리버풀을 꺾었다.

18일 뉴캐슬과의 개막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맨시티는 2연승을 달렸고, 리버풀은 1승1패가 됐다.

전반 40분 리버풀의 수비수 알베르토 모레노가 제대로 공을 걷어내지 못하자 요베티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로채 페널티박스 오른쪽에서 골로 연결시켰다. 후반 10분에는 사미르 나스리가 오른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요베티치가 쇄도하며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맨시티는 후반 19분과 23분 각각 헤수스 나바스와 세르히오 아구에로를 투입하며 리버풀 진영을 계속해서 공략했다. 아구에로는 교체해 들어가자마자 나바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박스 오른쪽에서 오른발 슛으로 추가골을 넣었다.

리버풀은 후반 38분 리키 램버트의 만회골로 영패를 면했다.

이날 패한 리버풀은 경기에 앞서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 마리오 발로텔리(24)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2012~2013시즌 맨시티에서 뛰던 이탈리아 AC밀란으로 옮긴 발로텔리는 1년 7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다. 영국 BBC에 따르면 발로텔리의 이적료는 1600만 파운드(약 270억원)로 추산된다.

올 시즌을 앞두고 '문제아' 루이스 수아레스를 바르셀로나에 내준 리버풀은 '악동' 발로텔리를 영입하며 최전방 공격수의 공백을 메우게 됐다. 발로텔리는 지난 시즌 41경기에서 18골을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sunc@

태극낭자 LPGA 4연속 우승 도전

태극낭자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4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올 시즌 상반기에 박인비(26·KB금융그룹) 이외에는 우승을 신고하지 못했던 한국 선수들은 8월 들어 루키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의 마이어 클래식 우승을 신호탄으로 박인비가 메이저대회 LPGA 챔피언십,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연달아 우승했다.

한국 선수들이 4주째 우승을 노리는 대회는 29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6476야드)에서 열리는 포틀랜드 클래식이다. 총상금 130만 달러를 걸고 열리는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세이프웨이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유소연을 비롯해 이미림, 최나연(27·SK텔레콤·사진) 등 한국 여자 선수들은 2011년과 2013년 이 대회 우승자 페테르센과 우승컵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특히 최나연은 2010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공동 2위, 2011년에는 연장전에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에게 져 준우승에 머무르는 등 이 대회와 우승 인연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시즌 첫 우승과 함께 이번 대회 징크스를 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쓸어 담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최나연이 승수를 추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장병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 대전

팀	1~3	4~6	7~9	R
NC	100	000	001	2
한화	100	200	00X	3

■ 사직

팀	1~3	4~6	7~9	R
삼성	100	202	320	10
롯데	001	310	020	7

백화수복
백화수복
백화수복
백화수복
집집마다 차례상은 달라도
추석에는 백화수복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대한민국 정통 제례주 백화수복 – 집집마다 차례상은 달라도 명절에는 역시 백화수복입니다